



### 정기총회 회의록 “허위사실 적시” 신고 및 절차위반

지역 새마을회 사무국장이 정기총회에서 결정된 내용과 달리 문서를 위조하고, 법무사의 조인을 받아 이를 합리화하려고 허위사실로 회원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여 관할관청에 등록 없이 법인등기를 한 경우, 이는 여러 법률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

정기총회 회의록은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논의 내용, 표결 결과 등을 사실대로 서술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될 경우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허위 회의록을 근거로 등기 변경을 하는 것은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 및 행사죄가 되어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더구나, 공정증서 발급을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법인등기를 하는 행위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을 신고하여 공문서에 부정확한 정보가 기재되도록 하는 범죄이다.

법인등기는 정관과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와 관할관청 등록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관할관청의 등록 없이 법인등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로 등기하는 경우, 부정 등기 및 등기부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가 되므로 심각한 법적 문제가 된다.

정기총회 회의록에 결의와 다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법적 책임과 함께 총회 결의 무효, 형사처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의록 작성과 총회 운영을 신중히 해야 한다.

사문서위조죄는 권한 없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정기총회 결의와 다른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작성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위조하는 경우 성립하며, 위조된 문서를 실제 사용하면

동행사죄가 추가된다. 동행사죄는 위조된 사문서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두 죄는 모두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행사죄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죄, 업무상배임죄 등 여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는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에 고발하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서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2. 위조 목적, 즉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로서 행사할 목적을 것
3.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을 것 (위임 범위 초과도 포함)
4. 사문서에는 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김준형  
가동취재본부장

증명서, 이력서 등 다양한 문서가 포함됨.

5.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를 실제로 타인에게 제시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6. 위조 사실을 몰랐더라도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음.

7. 공문서 위조의 경우보다 낮은 형량이지만,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히 다뤄짐

8. 위조만 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만 성립하며, 위조 후 사용하면 동행사죄도 추가로 성립

9. 미수범도 처벌 대상임

10.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도 일반인이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면 성립

11. 타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도 권한을 초과한 문서 작성은 위조죄에 해당한다.

### 독자투고

### 겨울철 전기 사용, 안전이 따뜻함을 지켜줍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기히터와 전기장판, 열선 등 전기난방기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방용품은 겨울철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만, 사용 환경에 따라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겨울철 전기화재는 대부분 일상 속 작은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래 사용한 전기제품이나 전선 상태를 미처 살피지 못한 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사용 전 외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상이 느껴질 때는 잠시 사용을 멈추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난방기기를 장시간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 전원을 꺼 주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전기장판 역시 올바른 사용이 중요합니다. 접힌 상태로 사용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올려두면 내부 열선이 손상될 수 있어 주

의가 필요합니다. 보관할 때는 말아서 두고, 온도는 생활에 불편하지 않은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보다 안전한 사용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화재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전열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 사용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멀티탭에 많은 제품을

연결하면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력 소모가 큰 기기는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류 차단 기능이 있는 멀티탭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난방기기를 조금 더 세심하게 사용하고, 평소와 다른 점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화재 위험은 충분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옮겨올은 따뜻함과 함께 안전도 함께 지켜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담당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이경호

### 오늘의 운세 2026년 1월 15일 목요일 (음력 11월 27일)

<p>48년생 든든한 동반자 끌어주고 인이주자 60년생 힘들고 서러왔던 고비를 넘어선다. 72년생 친한 분홍빛 기운을 키워보자. 84년생 경직된 수고를 감으로 받아내자. 96년생 기운이 든든한 소식 선물까지 들고 온다.</p>	<p>49년생 불청객과 동기도 예쁘게 해야 한다. 61년생 고백과 박 기록 만약에 대비하자. 73년생 살수도 실수 너무 각오를 다시 하자. 85년생 크거나 작거나 결과에 만족하자. 97년생 임무적인 약속 손가락을 걸어보자.</p>	<p>50년생 개구쟁이 동심 신나게 놀아보자. 62년생 어렵다 중도 포기하려 할 때 74년생 절조차 인허하는 행복이 함께 한다. 86년생 살짝 불안한 시간으로 지내자. 98년생 소중한 기운에 간절함을 더해보자.</p>
<p>51년생 결반의 성공을 목표로 해야 한다. 63년생 잊고 있던 미움의 싹을 뿌려보자. 75년생 근거 없는 허세 가난을 불러낸다. 87년생 게으름을 패했던 후회 없게 하자. 99년생 성장하는 속도가 눈으로 보여진다.</p>	<p>52년생 조연을 들고 가르침을 받아내자. 64년생 진정한 실력자 이름값을 올려보자. 76년생 상상했던 그림을 밖으로 꺼내보자. 88년생 오랜했던 등장 물음표가 그려진다. 100년생 인생이라는 교실 배우고 익히자.</p>	<p>53년생 무심한 거절도 원망들 들어보자. 65년생 오래했던 경향이 패기를 이겨낸다. 77년생 낙담했던 실패 배무라고 따뜻하다. 89년생 단단한 결심은 완성이 되어간다. 01년생 꽃피기 감투에 화려함이 더해진다.</p>
<p>54년생 이웃들의 도움을 넉넉히 받아내자. 66년생 겨울이 즐거운 나들이를 해보자. 78년생 최고가 아닌 차분한 발걸음으로 90년생 중요한 역할에 적임자가 되어보자. 02년생 거품을 걷어내야 진짜가 보여진다.</p>	<p>55년생 인생하라 대담 감히 해보자. 67년생 세심한 정성으로 손님이 해보자. 79년생 불만했던 인사 금방 친구가 된다. 91년생 풍성한 결과물 공간이 가득하다. 03년생 반가운 부름에겐 결정을 걸어보자.</p>	<p>56년생 너무하다 싶어도 이해가 우선이다. 68년생 화려한 전성기 날개를 펼쳐보자. 80년생 작하게 살았다 하는 복을 받아내자. 92년생 나설 때 가나면 뒷짐 지어한다. 04년생 치솟는 자산감 불꽃놀이도 화려하다.</p>
<p>57년생 과거의 명성은 지우개로 지워내자. 69년생 잘하고 있다 확신한 우물을 파보자. 81년생 희망이라는 단어 또렷이 보여진다. 93년생 불신과 편견 잘못임을 알아내자. 05년생 하고자 하는 의지 실천에 옮겨보자.</p>	<p>58년생 미루고 있던 숙제 빠르게 가져보자. 70년생 고장난 시계처럼 옛 것을 지켜보자. 82년생 욕심을 내리고 차분함을 지켜보자. 94년생 필요했던 부분 넉넉히 채워준다. 06년생 완벽한 마무리 박수 받아 마땅하다.</p>	<p>59년생 노인이었다면 열정 설렘이 다시 온다. 71년생 늦어있는 공부 부지런히 따라가자. 83년생 냉정한 판단 백기 들어 항복하자. 95년생 고군분투 노력 증거로 남겨진다. 07년생 의지는 버릇 고쳐고지고 예를 쓰자.</p>

### 기고

### 겨울철 안전, 지금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겨울철은 난방기기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기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다. 실내 활동이 늘고 난방장치, 열선, 전기장판 등 전열기기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주택과 상가, 축사 등 생활공간 곳곳에서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겨울철 특성상 전기화재는 초기 연소속도가 빠르고 연기량이 많아 대피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전기화재의 대부분은 과부하, 과열, 접촉불량이라는 공통된 원인에서 비롯된다.

전열기구를 한 멀티탭에 여러 개 동시에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접히거나 눌린 전선·전기장판으로 인한 과열, 오래된 전선 피복 손상, 차단기·배전반 내부 먼지로 인한 누전 등은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특히 열선의 겹침, 목은 먼지, 느슨해진 전선 접촉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은 더욱 치명적이다.

전기화재는 전문 장비나 복잡한 점검 없이도 일상 속 작은 확인만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전기히터는 반드시 전용 콘센트에 단독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작동 시 간헐적으로 꺼주어 과열을 방지해야 한다. 전기장판 위에는 이불이나 방석 등을 겹쳐 덮지 말고, 장판 위에 무거운 물건을 올려둘 경우 내부 열이 갇혀 발화 위험이 높아진다. 또 열선은 겹침·눌림 없는 '직선형 설치'가 원칙이며, 오래된 멀티탭이나 콘센트는 3-5년 주기 교체가 안전하다.

전기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험을 줄이는 생활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를 뽑기 ▲멀티탭에 전열기구 2대 이상 연결 금지 ▲피복 손상 전선은 즉시 교체 ▲타는 냄새·스파크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전원 차단 ▲취침 전 난방기기 전원 OFF 확인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시험 버튼으로 점검 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화재를 미연에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안전 장치이다.

전기화재는 화염 확산과 연기 발생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기화재에는 물을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분말소화기나 이산화탄소 소화기가 적합하다. 가정이나 업소에서는 소화기 1대, 감지기 1개 이상 설치가 필수이며, 실제 소화기의 위치와 사용법은 가족·직원이 모두 숙지해야 한다. 또한 "경보음 울림 → 전원 차단 → 119 신고" 기본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연습해 두면 만일의 상황에서 침착한 대처가 가능하다.

전기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부분은 작은 부주의 하나로 시작되는 예방 가능한 사고다.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위해 오늘 하루, 콘센트 하나, 스위치 하나부터 점검해 보자. 우리의 작은 실천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다.

강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이승민

### 광전매일신문 e-mail : gwangmae5678@hanmail.net

회장이 송암	발행인·대표이사 정길화
편집인 전광춘	편집국장 박선주
2016년 8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 00065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0번길 8, 2층
대표전화 (062) 525-9775	<팩스> (062) 528-4566
회장실 (내선) 210	편집국 교 2001
임원실 (내선) 207	정경부 교 2003
총무국 교 2002	사회부 교 2004
광고국 교 2006	사업국 교 2007

인쇄 (주)대 한칼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3,000원 · 1470원

## 경부고속도로 개통 50년,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만들다!

대한민국과 함께 성장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생명선이었습니다.  
기적의 50년! 희망의 100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